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28-1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2025년 상반기)

2025. 5. 7.

---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재판소(52%), 국군(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38%) 등의 순 헌법재판소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상승, 중앙선관위, 국군, 국무총리 평가도 개선

지난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은 역사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장악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하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욱 직접적으로, 1월 16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 이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빨빠르게 대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직후 본회의를 소집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군의 통제를 뚫고 참석해 12월 4일 새벽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민주당 등 약 5당이 주축이 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했다(한 총리도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1월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 일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탄핵을 둘러싼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총 12번의 공판을 거친 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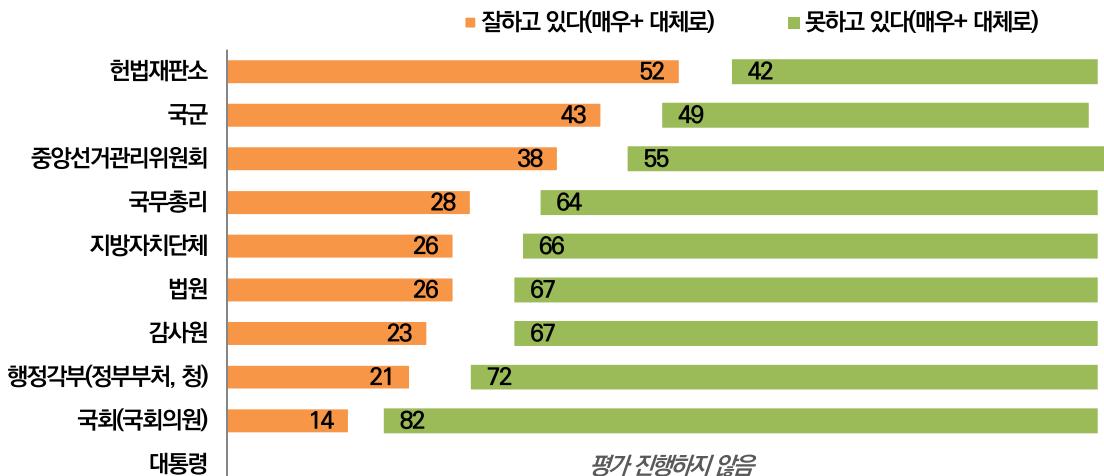
이처럼 헌법기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지난 4월 21일~23일, 군을 포함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闕位) 상태가 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

헌법기관 중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전체 응답자 중 52%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평가한다. 국군(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38%)가 뒤를 잇고, 국무총리(28%), 지방자치단체(26%), 법원(26%), 감사원(23%), 행정각부(21%)은 긍정평가가 20%대 수준이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14%만이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답해, 평가가 가장 나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22%)보다 30%포인트나 상승해 유일하게 50%를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긍정평가가 19%포인트 상승했으며, 국군과 국무총리 등 대부분 헌법기관의 긍정평가가 5~7%포인트 상승했다.

##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재판소(52%), 국군(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38%) 등의 순

(단위 : %)



## 헌법재판소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상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군, 국무총리 평가도 개선

(단위 : %)

	헌법 재판소	국군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지방자치 단체	법원	감사원	행정각부 (정부부처, 청)	국회 (국회의원)	대통령
2024년 상반기	28	45	27	24	28	20	22	23	5	22
2024년 하반기	22	36	19	21	21	20	18	20	8	15
<b>2025년 상반기</b>	<b>52</b>	<b>43</b>	<b>38</b>	<b>28</b>	<b>26</b>	<b>26</b>	<b>23</b>	<b>21</b>	<b>14</b>	<b>-</b>
차이(%p)	+30	+7	+19	+7	+5	+6	+5	+1	+6	-

질문: 다음의 각 헌법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파면되어 궐위 상태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년 상반기: 2024. 3. 22 ~ 25 // 2024년 하반기: 2024. 9. 27 ~ 30 // 2025년 상반기: 2025. 4. 21 ~ 2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진보층과 중도층이 주도 국무총리 역할수행 평가, 60세 이상과 보수층은 긍정적, 50대 이하와 진보·중도층은 부정적

헌법재판소의 평가 상승은 진보층이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진보층 중에서는 17%만이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고 평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7%가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중도층에서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19% → 51%). 반면 보수층에서는 32%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변화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역할수행 긍정평가 변화도 눈에 띈다. 선관위의 역할수행 긍정평가 상승 또한 진보층에서의 평가 반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층 중 60%가 선관위가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긍정평가(17%)보다 43%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중도층 또한 35%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해 하반기 대비 18%포인트가 높다. 반면 보수층에서의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22%로 큰 변화 없는 수준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기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진보층의 긍정평가 상승은, 이들이 헌법 수호자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평가는 세대별로는 60세 이상과 50대 이하 간 평가가, 이념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진보층 간의 평가가 크게 갈린다. 60대(47%)와 70세 이상(50%)의 절반 가량이 국무총리의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15~21% 수준에 그친다. 이념별로는 보수층(54%)이 진보층(9%)과 중도층(22%)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다. 이는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다.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진보층과 중도층이 주도

(단위 : %)

역할수행 긍정평가 응답	헌법재판소			법원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군		
	'24 하반기	'25 상반기	차이 (‘25- '24)												
전체	22	52	+30	20	26	+6	18	23	+5	19	38	+19	36	43	+7
<b>연령</b>															
18~29세	19	45	+26	16	32	+16	13	25	+12	19	31	+12	25	27	+2
30대	23	54	+31	20	27	+7	11	17	+6	22	35	+13	26	38	+12
40대	14	54	+40	12	24	+12	9	22	+13	15	37	+22	25	37	+12
50대	19	61	+42	19	23	+4	16	13	-3	19	47	+28	35	44	+9
60대	23	51	+28	21	27	+6	23	33	+10	19	37	+18	45	58	+13
70세 이상	39	42	+3	34	26	-8	34	31	-3	24	36	+12	62	53	-9
<b>거주지역</b>															
서울	20	53	+33	19	24	+5	18	27	+9	20	33	+13	32	38	+6
인천/경기	19	54	+35	16	29	+13	16	22	+6	17	39	+22	36	44	+8
대전/세종/충청	30	50	+20	23	34	+11	17	23	+6	27	37	+10	44	48	+4
광주/전라	24	65	+41	22	28	+6	9	10	+1	13	54	+41	33	45	+12
대구/경북	31	41	+10	28	19	-9	27	26	-1	21	24	+3	42	41	-1
부산/울산/경남	21	43	+22	19	22	+3	17	29	+12	21	37	+16	37	47	+10
강원/제주	27	59	+32	30	21	-9	25	19	-6	18	37	+19	32	35	+3
<b>주관적 이념성향</b>															
진보층	17	77	+60	15	28	+13	9	16	+7	17	60	+43	25	44	+19
중도층	19	51	+32	17	29	+12	13	18	+5	17	35	+18	33	40	+7
보수층	32	32	0	30	23	-7	31	36	+5	25	22	-3	51	47	-4

질문: 다음의 각 헌법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긍정평가(매우 잘 하고 있다 + 대체로 잘 하고 있다) 응답값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년 하반기: 2024. 9. 27 ~ 30 // 2025년 상반기: 2025. 4. 21 ~ 23

## 국무총리 역할수행 평가, 60세 이상과 보수층은 긍정적, 50대 이하와 진보·중도층은 부정적

(단위 : %)

역할수행 긍정평가 응답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정부부처, 청)			지방자치단체			국회 (국회의원)		
	'24 하반기	'25 상반기	차이 (‘25- '24)	'24 하반기	'25 상반기	차이 (‘25- '24)	'24 하반기	'25 상반기	차이 (‘25- '24)	'24 하반기	'25 상반기	차이 (‘25- '24)	'24 하반기	'25 상반기	차이 (‘25- '24)
전체	15	-	-	21	28	+7	20	21	+1	21	26	+5	8	14	+6
<b>연령</b>															
18~29세	6	-	-	8	21	+13	13	19	+6	14	26	+12	7	14	+7
30대	5	-	-	10	16	+6	11	18	+7	18	27	+9	7	10	+3
40대	7	-	-	10	15	+5	11	12	+1	15	19	+4	6	12	+6
50대	14	-	-	17	21	+4	18	18	0	23	21	-2	8	16	+8
60대	21	-	-	29	47	+18	23	30	+7	21	30	+9	8	13	+5
70세 이상	40	-	-	55	50	-5	44	31	-13	34	35	+1	9	17	+8
<b>거주지역</b>															
서울	16	-	-	22	31	+9	19	24	+5	18	25	+7	6	13	+7
인천/경기	14	-	-	19	25	+6	16	20	+4	19	30	+11	8	13	+5
대전/세종/충청	19	-	-	25	31	+6	26	28	+2	26	24	-2	9	14	+5
광주/전라	9	-	-	14	14	0	13	13	0	17	32	+15	10	24	+14
대구/경북	19	-	-	26	38	+12	30	21	-9	28	20	-8	7	13	+6
부산/울산/경남	14	-	-	20	32	+12	20	22	+2	18	22	+4	8	9	+1
강원/제주	17	-	-	24	31	+7	27	19	-8	24	24	0	7	18	+11
<b>주관적 이념성향</b>															
진보층	3	-	-	7	9	+2	8	15	+7	20	30	+10	9	27	+18
중도층	10	-	-	15	22	+7	16	17	+1	16	23	+7	6	10	+4
보수층	32	-	-	41	54	+13	35	33	-2	27	27	0	9	7	-2

질문: 다음의 각 현법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긍정평가(매우 잘 하고 있다 + 대체로 잘 하고 있다) 응답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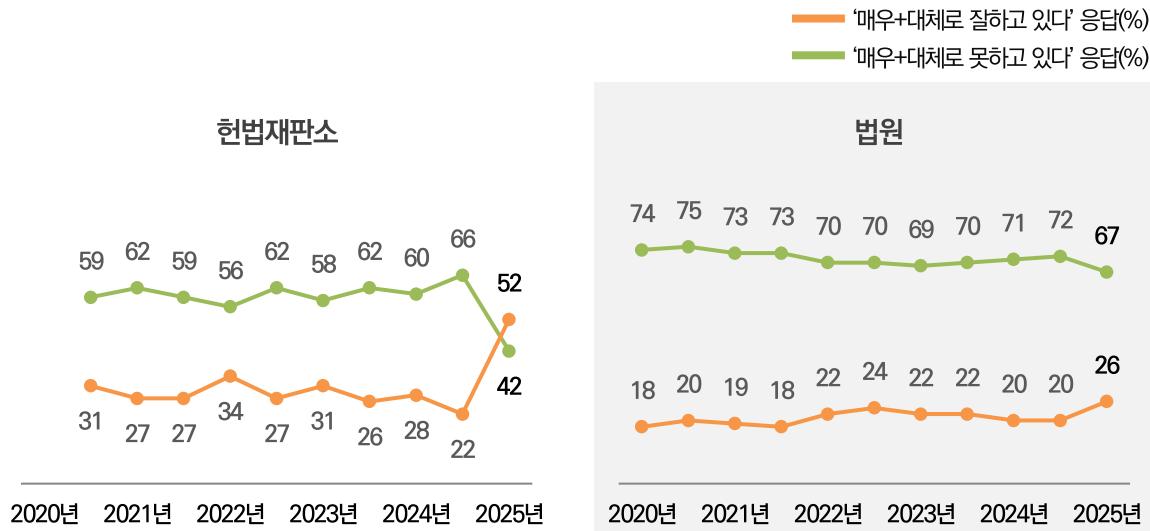
조사시점(2025년 4월 21일) 현재 파면되어 궐위 상태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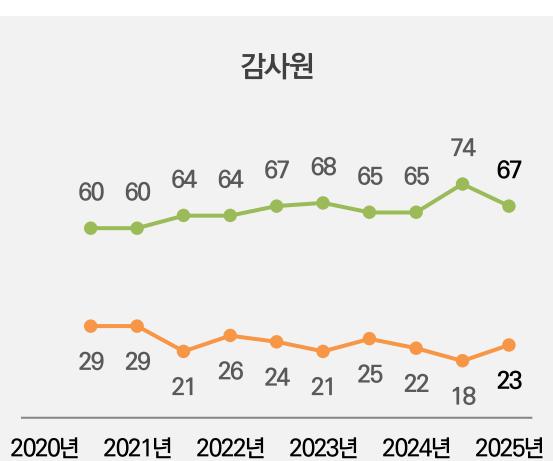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4년 하반기: 2024. 9. 27 ~ 30 // 2025년 상반기: 2025. 4. 21 ~ 2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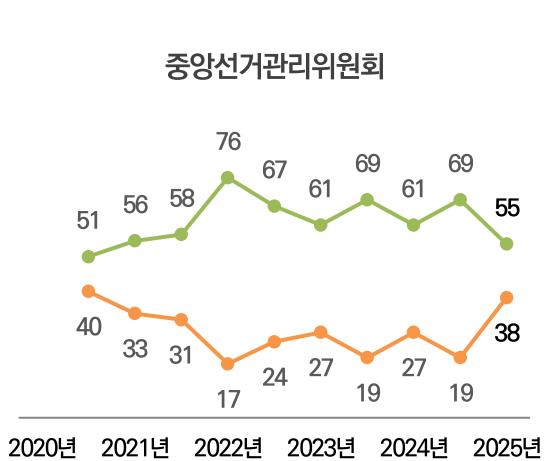
## 현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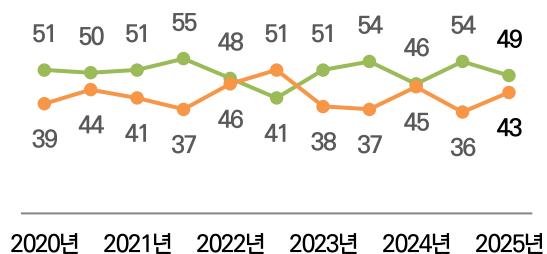
## 감사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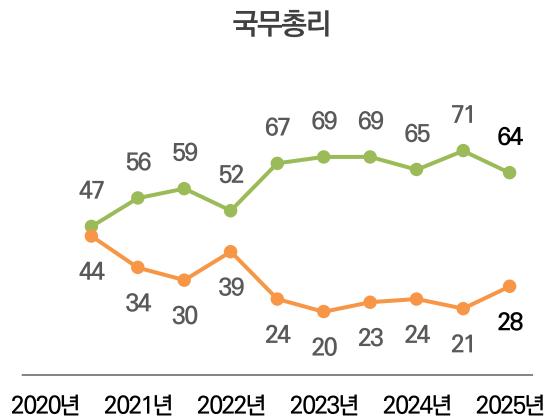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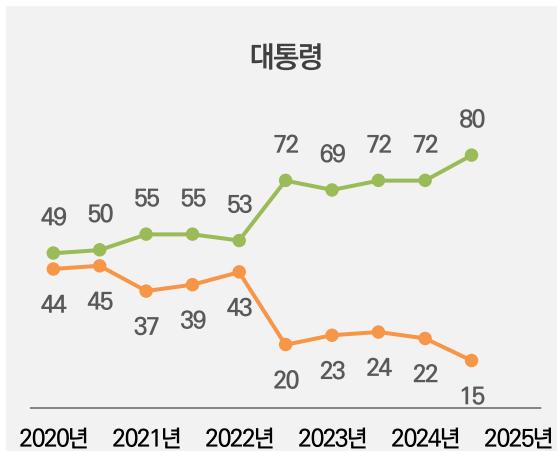


질문: 다음의 각 현법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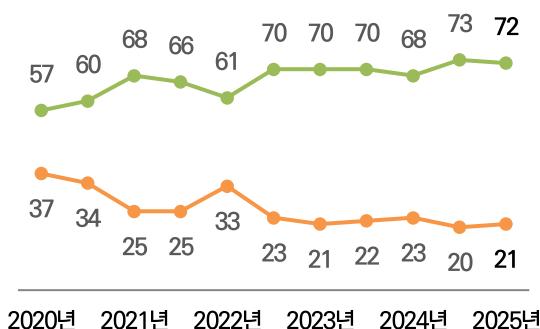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 현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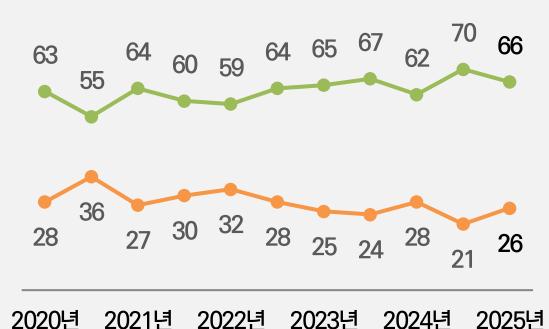
■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 응답(%)  
 ■ '매우+대체로 못하고 있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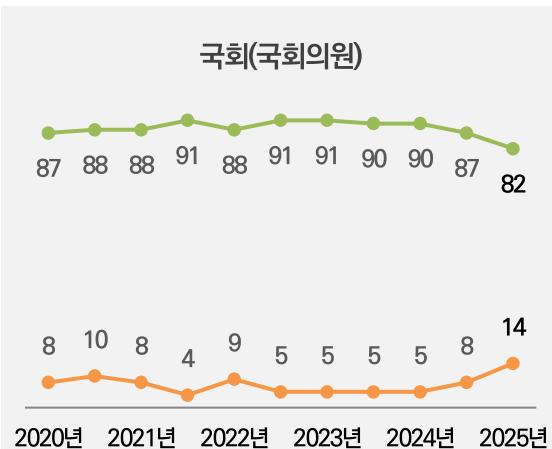
## 행정각부(정부부처, 청)



## 지방자치단체



## 국회(국회의원)



질문: 다음의 각 현법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2025년 상반기 조사시점(2025년 4월 21일) 현재 대통령은  
파면되어 결위 상태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li></ul>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3월 기준 약 97만여 명)</li></ul>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li></ul>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000명</li></ul>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li></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li></ul>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li></ul>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조사요청 39,545명, 조사참여 1,86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5%, 참여대비 53.6%)</li></ul>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25년 4월 21일 ~ 4월 23일</li></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li></ul>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